

왜 2015년 10월 7일에 이 세상의 종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나, 5부, 크리스 맥켄, 2015년 4월 5일 방송분.

안녕하세요? E Bible Fellowship의 주일 성경공부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왜 2015년 10월 7일에 이 세상의 종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지"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다섯번째 공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부해왔습니다:

- 1) 2015년 10월 7일은 하나님께서 1988년 5월 21일에 세상 교회인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 지 "10,000" 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 2) 2015년 10월 7일은 하나님께서 2011년 5월 21일에 이 세상의 심판을 시작하신 지 "1,600" 일째인데 이 숫자는 "40의 40번"입니다.
- 3) 2015년 10월 7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끝과 결부시킨 두 추수절 중의 하나인 수장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2015년 10월 7일에 성경에서 주안점을 준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강조사항으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 10월 7일이 또한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초막절을 말씀하실 때 "마지막 날"이라는 구절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에 대해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는가에 대해 배우고 "마지막 날"에 관해 검토하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함께 조화를 이루는지를 알아볼 것인데 마치 하나님께서 심판의 "마지막 날"과 부활의 "마지막 날"을 초막절과 연결하시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4-43절을 먼저 보시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칠월 십오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칠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찌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찌며 칠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 팔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찌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찌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찌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칠월 십오일부터 칠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 팔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칠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찌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칠월에 이를 지킬찌니라 너희는 칠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찌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구절들은 초막절과 수장절에 관한 것인데 이 두 절기는 동시에 지켜졌습니다. 지난번 우리의 공부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추수"의 내용이 이 세상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았으나, 사실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에 관해서도 똑같이 취급하십니다. 두 절기 모두 다 히브리 달력의 "7 번째 달 15 번째 날"에 지켜집니다. 두 절기 다 같은 성회의 시간표를 따르며 두 절기 다 "9 째"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 일을 말씀하시나 성경은 "아홉째 날"이 있음을 암시하며 이날은 7 번째 달의 23 일이며 초막절의 "마지막 날"로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성회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23 장 14 절을 읽어보시지요.

너는 매년 삼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세 가지 주요 성회를 택하셨습니다.

- 1) 유월절 (무교절)
- 2) 오순절 (초실절)
- 3) 초막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성회는 매년 지켜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가지 성회를 택하실 때, 이 것이 성회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때와 기한"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지적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달성되며 또한 심판계획이 달성되는 "때와 기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23 장 15-17 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대로 아빱월의 정한 때에 칠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찌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 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찌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찌니라

우리가 전에도 언급했듯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도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 성회는 세 가지의 영적인 이루어짐을 나타냅니다. 유월절 (무교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예수께서 유월절의 양이 제물로 바쳐질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세례 요한에 따르면 "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때 영적으로 그 성회를 이루신 것입니다. 50 일 후, 우리는 오순절 (초실절)을 맞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쏟아부으심으로 그 성회를 영적으로 이루셨습니다.

비록 이 두 성회가 서로 가까운 시일 내 (오직 50 일 차이 내)에 이루어졌지만, 세 번째인 초막절 (수장절)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약 2,000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에 관한 명령을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주셨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은 기원전 1447 년에 애굽에서 나온 뒤 40 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영적으로 오순절과 함께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 약 1,400 년 동안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신 것 같이 영적으로 이 성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오랜 시간이 있는 율법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세번째이자 마지막 성회인 초막절과 수장절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23 장에서, 수장절이 언급이 돼있는데 초막절에 대한 언급을 볼 수 없지만 신명기 16 장에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 장 13-16 절을 보시면: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칠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칠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찌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일년 삼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일 년에 3 번 지켜져야 할, 같은 세 개의 성회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을 "칠칠절"로 말씀하시고 수장절은 말씀하시지 않지만 초막절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 두 절기가 같은 시간에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들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일 "추수"를 강조하고 싶다면 수장절을 말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거뒀다는 것입니다: 또 만일 장막을 강조하고 싶다면 초막절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두 성회가 7 번째 달 15 일에 시작이 되고 시간표에 함께 연결이 돼 있고 하나님의 "때와 기한"의 시간표에 연결돼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초막절과 수장절을 읽을 때 내용이 비슷한 이유입니다.

지난번 우리 공부에서 설명했듯이 성경은 "추수"를 세상의 마지막과 연결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 장 39 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또한 초막절의 "마지막 날"의 설명을 이 세상의 "마지막 날"과 연결합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어구가 이 둘을 연결시킵니다. 느헤미야 8 장 14-17 절을 읽어보시지요: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칠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찌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여기서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초막절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을 기억하시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속박에서 풀려난 엄청난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할 때 그들은 집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을이나 살 집도 짓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언제

또 그들이 움직여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그분의 "구름기둥"에 의해 그들의 움직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구름기둥은 언약궤가 있는 장막이 있는 곳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름기둥이 다시 움직이기 전까지 그곳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구름기둥이 다음날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일 년 후에 움직일 수도 있었으며 이스라엘은 언제 구름기둥이 움직일 줄 몰랐습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따라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구적인 건물을 지을 수 없었고 "우리가 이곳에서 6개월을 머물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견고한 건물을 짓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다음 날 움직여야 할 지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임시 처소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들은 "천막"에서 지냈습니다. 그것은 한 가족이 들어가 지낼만한 작은 텐트였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쉽게 그것을 설치하고 또한 이동해야 할 때 쉽게 접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기둥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시대의 광야의 여정 후로 유대인이 사로잡혔다 돌아온 때까지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로잡힌 것을 말합니까? 그것은 (애굽이 아닌) 바벨론이며 북쪽의 땅으로부터 농임을 받아 유다로 돌아온 것인데 영적으로는 이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즉 애굽에서 나온 것은 영적으로 바벨론에 사로잡혔다 나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가지 사건을 이사야서 48장 20-21절에서 함께 언급을 하십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어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나와 갈대아인을 피하고"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유대인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나와 사막에서 목마르던 일들을 언급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참으로 자연인이 새롭게 태어난 마음이 없이는 성경이 이해하기 힘든 책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쓰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기 20절과 21절은 확실한 일관성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사탄의 왕국을 대표하며 사탄의 상징인 바벨론의 왕에 의해 통치를 받았습니다. 애굽 역시 사탄의 왕국을 대표하며 사탄의 상징인 바로에게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는 것과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 매우 유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8장에서 읽은 것과 같이 바벨론에서 나온 회중에 의해 초막절이 지켜졌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초막에 거하던 일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며 아주 잘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회중이 다시 거주할 초막을 만들었는데, 느헤미야 8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여호수아의 때부터 이때까지 마치 이 두 가지 사건들 사이의 모든 역사가 건너 뛴 것 같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속박 아래 있었던 모든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세상의 끝이 올 때까지 공식적으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큰 구원의 날인 2011년 5월 21일에,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을 여시고 태초로부터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택함을 입었으나 속박받았던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 시점에, 마지막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며 이것은 마치 모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과 모든 유다가 바벨론의 속박에서 놓인 것과 같습니다.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어린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쓰여진, 구원 받아야 할 마지막 사람이 구원을 받은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가슴에 적용시켜 거듭난 때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유대인이 애굽에 있었다면, 그는 잔인한 속박 아래 고난을 당했겠지만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놀라운 시간이 올 것으로 생각했지만 40년간 시험을 당했습니다. 2011년 5월 21일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서 "40x40"일 동안일 가능성이 높은 "시험"을 견뎌야 하는 과정으로 인도하셨는데 이것은 속박에서 놓임을 받은 후 광야에서 유리하며 초막에 지냈던 것을 영적으로 이루는 과정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을 한다면, 2011년 5월 21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막절 혹은 장막절을 영적으로 지키기 시작했고,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고 이 세상의 광야에서 유리하며 시험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육체적으로 통과한 것이며 "영적인 이스라엘"이 시험을 받으며 매일 매일 계속해서 초막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2015년 10월 7일로 가고있는데 이날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고 여행을 떠나는 날인데, 역사적으로 7번째 달의 23번째 날입니다.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성회가 끝났으므로 집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날 하루를 더 주셨는데 8일째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거리 이상을 여행할 수 없었고 안식일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9일째의 규정을 만드셨는데 이는 8일째와 동일한 것이고 이 7번째 달 23번째 날에는 그의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적으로는 큰 구원을 받은 후 그들이 유리하는 가운데 초막절을 지키고 시험 기간을 지낸 후에 집으로 돌아가기에 완벽한 날입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에 있는 우리의 구절을 마저 읽으시지요. 느헤미야 8장 18절을 보시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칠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 팔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초막절과 관련하여 "마지막 날 (혹은 끝날)"을 말씀하셨는데 생각 없이 읽으면 그저 지나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 물론,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7 일

동안의 성회가 있으니 그것이 8 일째가 되지. 그리고, 9 일째는 8 일째와 동일한 날이고 여행하는 날이지."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의 때에 초막절 기간에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한 기록을 알고있습니다. 역대기와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23 일째"를 세어볼 수 있습니다: 즉 펜과 종이를 가지고 "15, 16, 17, 18,19,20,21,22 그리고 23"을 적습니다. 그 위에 "1"을 "15"위에 적고 "2"를 "16"위에 적고 이를 계속하면, "23" 위에 "9"를 적게 됩니다. 이 마지막 날이 2015년 10월 7일에 맞아떨어집니다 - 이것은 "마지막 날"이며 성경에서는 8일과 동일한 날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 7장 8-10 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때에 솔로몬이 칠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제 팔일에 우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단의 낙성식을 칠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칠일 동안 지키니라 칠월 이십 삼일에 왕이 백성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다시 한번 숫자 "15"에서 "23"을 적고 "1"에서 "9"까지를 세어 보시면 23일은 9번째 날이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 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께 보여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회에 참여하기 위해 가족들과 동행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숙박 시설이 부족한 "숙박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며 성회에 참여하는 동안 장막에서 지냈을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8장에서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즉 그들은 초막절의 첫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지내기 위해 장막을 지은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어귀는 하나님께서 신약의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초막절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다시 한번 사용하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초막절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라는 신비로운 말씀을 하시며 아직 성회에 가지 않을 것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 후, 곧바로, 이 성회에 가셨습니다. 세번째로 중요한 성회인 초막절의 영적인 이루심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유월절은 영적으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고 오순절은 오순절날 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 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여기서 이미 이르매는 온전히 차매 (영어로는 fully come)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저희가 다 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그리고 성령이 쏟아부어 졌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쏟아부어져서 오순절이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 수 천년 동안 이 성회의 의식이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매년 외형적으로 지내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서기 33 년의 오순절날 성령이 쏟아부어 지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온전히 찬"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쏟아부으심으로 인해 교회 시대를 여시고 세상의 복음을 공식적으로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순절이 "온전히 차매" 한 번의 설교로 3,000 명이 구원을 받았고 첫 열매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첫 열매는 교회시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들어왔고 이것은 초실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말씀하실 때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면에서 초막절은 주후 33 년에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성회에 가셨는데, 이 말씀을 아무렇게나 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지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날 성회를 지내는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육체적으로 초막절을 지내기 위해 가시겠지만 초막절은 영적으로 그해에 온전히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시간"이 "아직 온전히 차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이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계획을 완성하시고 천국의 문을 닫으시고 심판을 불러오셔서 영적으로 이 성회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심판 기간은 "마지막 날"까지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초막절을 영적으로 이루실 때가 온전하게 찰 것이며 이 세상의 거민들을 벌하는 심판주로서 또 그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 복음 7 장 37 절을 보시지요: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날"과 동일시하십니다. 이 글귀는 느헤미야 8 장에서 찾아보았고 같은 글귀를 초막절과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글귀는 세상의 마지막을 지적하는 것이며 이 공부를 지속하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즉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들은 "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끝날까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이 이 세상의 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올바르게 이해했으나 이 말씀은 영원한 미래까지 흐르는 생수를 와서 마시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구절들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단어와 언어를 검토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시는데 요한 계시록 21 장으로 가서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내용을 말씀하시며 요한 계시록 21 장 5-6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 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자, 보세요. 이것은 이 세상의 끝입니다. 세상은 끝이 났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예수께서 "처음과 나중"이라고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분이 "나중, 혹은 마지막"이며 이날은 큰 성회의 마지막 날이며, 예수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견책과 시험의 이 괴로운 기간이 시작된 후 놀라움 속에 살아온 것의 끝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내게로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음의 생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시선을 영원한 미래로 돌리는 때에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은 실로 완벽한 지적인 것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큰날이라고 번역된 곳에서 원어에서는 날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보아도 day 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탤릭체로 되어있어서 원어에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는 큰날이 성회의 마지막 날이며 번역한 사람이 이 단어를 넣어서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스바냐서 1 장 14-16 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와 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와 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땅대를 치는 날이로다

"여호와와 의 큰 날"은 하나님의 분노의 날입니다. 요한 계시록 6 장 17 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한글 성경에는 복수인 "그들의" 라고 번역되었으나 여기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수인 "그의"가 맞는 번역입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날은 성회의 큰 날인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은 여호와와 의 큰 날이며, 하나님의 무서운 화가 내려져 이 세상의 죄악을 응징하는 날입니다.

진도를 더 나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이라는 글귀를 초막절과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라는 글귀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 즉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주 세상의 끝에 관해 경고를 하시기 때문에 이 글귀가 많은 곳에 나올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지막 날 (영어로는 the last day)"이라는 글귀는 성경에서 오직 8 번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오직 한번만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 장 18 절이며 신약에서 7 번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 복음 7 장 37 절에서 한번 나오고 나머지 6 번도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 장 39-40 절을 읽어보시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3-4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53-54절을 읽어보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한 장에서 4 번이나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다시 살리리라"는 말씀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 장 14 절을 보시지요: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 "다시 사심"으로 번역된 단어는 "다시 살리리라"라고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희랍어입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4 장 14 절을 보시지요: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 장 16 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은 "일어나"거나 "다시 살리심 혹은 들림"을 받을 것인데 이것은 부활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활절인데 여러분은 부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결국 부활에 대해 언급을 하게 되네요. 성경은 우리를 초막절에 대해 살피도록 인도를 하고, 특히 죽은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초막절의 "마지막 날"로 인도합니다. 즉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두 번 또는 세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서는 몇 구절에서 네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을 지적하시려고 하신 걸까요? 그분은 분명히 그의 백성들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들은 죽어 땅에 묻힌 채 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무덤에서 나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 장 20-26 절을 읽어보면 "마르다"가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올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만일 당신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우리가 본 말씀의 24절에서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한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마지막 날"이라는 글귀를 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에서 4번이 나오고 여기 요한복음 11장에서 한번이 나오는데 다섯번 모두 이 세상의 마지막에 부활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7번이 되고 단 하나만이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 역시 요한복음인데 12장 48절을 보시지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마지막 날에"라고 한 다른 구절들과 약간 다른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도 "마지막 날 부활에는"이라고 했는데, 여기 요한복음 12장 48절에는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고 하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의 깊고 정확하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1년 5월 21일부터, 2015년 10월 7일일 가능성이 높은, 일정 기간 연장된 심판날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시는데 반해 오직 마지막 날, 즉 끝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활과 들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전치사 하나도 주의 깊게 사용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부활시키시는 데 마지막 날 동안에 (영어로는 in the last day)라고 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 (영어로는 at the last day)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의 의미는 성경은 "마지막 날" (즉 2015년 10월 7일일 가능성이 높은 이날)을 심판의 마지막 날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날은 여러가지 관점에서 분명히 두드러진 날입니다. 2015년 10월 7일에 대한 강조가 아주 많이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으며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 때라고 말 하는 의미는 어쩌면 우리가 틀릴 수 있고 세상의 끝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우리는 2015년 10월 7일에 관하여는 몇 가지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 1) 이 날은 분명하게 1988년 5월 21일부터 10,000일째의 심판날입니다.
- 2) 이 날은 분명하게 2011년 5월 21일부터 1,600일째(또는 40의 40번째) 날입니다.
- 3) 이 날은 분명하게 2015년 추수의 "마지막 날"입니다.
- 4) 이 날은 분명하게 2015년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두 함께 그 특별한 날에 맞아떨어집니다. 이날은 10,000번째 날이며 1,600번째 날이고, 추수의 마지막 날이며,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이 이 세상 존재의 "마지막 날"이 될까요?